

# Pamiry

2018 1월~3월 vol.20

2018 신년사

무술년 개띠 신년 인터뷰

피플 - 제본사업본부 심은식 과장

국립수목원의 늦은 가을



# 고객의 꿈을 만들면 우승품이다

All About Printing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ONE STOP TOTAL PRINTING SERVICE **FOR THE BEST, BY THE BEST!**

팩컴은 One-stop Print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전통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인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otal Graphic Solution Provider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과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여, 지속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 8층 (정자동 젤존타워2) | TEL : 031-718-3666 | FAX:031-718-5857

**Pacom**

**Pacom AAP**

**Book m'ake**

## CONTENTS



- |    |      |                      |
|----|------|----------------------|
| 02 | 신년사  | 김경수 대표이사님            |
| 03 |      | 최숙 대표님               |
| 04 |      | 김홍규 상무님              |
| 05 |      | 조성길 상무님              |
| 06 | 인터뷰  | 무술년 개띠 인터뷰 & 삼행시     |
| 09 | 동감   | 개처럼 살 일이다            |
| 10 | 북리뷰  | 트렌드코리아 2018          |
| 11 | 건강튼튼 | 수족냉증 파헤치기            |
| 12 | 메세지  | 풍대리가 보낸 편지           |
| 13 | 피플   | 제본사업분부 심은식 과장        |
| 14 | 페스티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 16 | 꿀팁창고 | 명절 꿀팁                |
| 18 | 힐링로드 | 국립수목원의 늦은 가을         |
| 20 | 무비토크 | 영화 노트북               |
| 21 | 정보쏙쏙 | 2017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제도들 |
| 22 | 찰칵소리 |                      |
| 24 | 팩컴뉴스 |                      |



## 김경수 대표이사님 신년사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만 배우며 살았다"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지요.

돌이켜 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살아 온 자신의 과거를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란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충실히 못한 시간을 살았다 하더라도, 시간은 공평하게 또 다시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시간이란 무정하고도 불가역적이며, 통제 불가의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 또한 개인이 어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1년,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사람은 바로 5분 후의 미래도 전혀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은 인생이자, 존재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정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이 순간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 한 개인이 어떻게든 손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란 바로 이 순간뿐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것이 낭비였다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지라도….

고통이 와도, 기쁨이 와도 그것들에 결코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개인이 선택한 순간의 결과만이 있고, 그 순간 인생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흘러간 과거에 대한 미련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지금 다가온 이 순간을 느끼고, 즐기고, 또 사랑하며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최숙 대표님 신년사

새로이 맞이하게 될 2018년.

올 한 해는 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가득 채워진 2017년을 뒤로 하고, 눈부신 백지와도 같은 새해가  
다시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그 새하얀 백지에 뭘 그려 넣고 싶으신지요?

전 이 하얀 백지에 단정한 우리 회사를 그려 넣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그리고 당당한.

제조업을 영위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체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가  
느냐고 지인들이 묻습니다. 인쇄 산업, 출판과 인쇄조차 구분하지  
못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꿋꿋이, 우리의 업종을 잘 지키  
고 키워 가면서, 돈도 잘 버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만 하라 하는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연말 세미나 때, 스스로의 저력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치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대견해 하며, 하면  
된다는 마음은 더 열심히 하고픈 마음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깨  
달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해, 2018년은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짓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김홍규 상무님 신년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늘 평안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의 여파로 모두가 고군분투하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 여러 정황을 볼 때, 새해에도 경기가 좋아지거나 인쇄업계의 경영 환경이 그리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된다 하더라도 성장률은 2% 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2018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여 “팩컴이 만들면 명품이다”라는 우리의 슬로건에 맞게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쇄업계의 미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18년 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팩컴의 미래를 열어 갈 주인공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속하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가내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길 상무님 신년사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는 안팎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장님의 탁월하신 지도 아래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고, 또 노력하여 다행히 매출도 다소 늘고 생산성도 좋아졌습니다. 동업계가 다들 힘들어 하는 와중에 거둔 쾌거이기에 매우 자랑스럽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주변 상황은 만만치 않고, 여러 악조건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경쟁력 강화와 유지 발전, 변화 및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니,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직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의지를 결집시켜 한 해를 기운차게 시작합시다.

영업은 매출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고, 생산과 관리는 제가 항상 강조해 왔던  
 ①원가 절감/cost down, ②생산성 향상/효율성 제고 ③품질 향상/사고 근절의 3대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매진토록 합시다.

목표가 달성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버려야 합니다. 그 동안 무심코 해 왔던 생각, 관행, 업무 상 필요 없는 것, 우리가 가는 길에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과감히 버립시다. 버리지 못 한다면 코스트와 생산성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바꿉시다. 남과 같이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하던 대로 한다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고마운 직원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3대 과제를 위해 버리고, 바꾸고, 목표는 기필코 달성하여 튼튼하고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시다. 멋지고 자랑스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무술년 개띠 신년 인터뷰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라고도 하지요. 우리 팩컴의 마스코트 현풍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인데요. 자유분방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 또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마디로 의리를 아는 동물! 이처럼 성실하면서도 활기 차고 밝은 개띠 생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주인공들을 만나 무술년 새해 소망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팩컴 개띠 생들의 삼행시 콘테스트를 열어 보았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무술년" !!! 과연 1등에게 주어지는 거액의(?) 문화 상품권은 어느 분이 가져가게 될까요? **P유공심**



인쇄사업본부 / 유성현 부기장님

지금 당장 특별 휴가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하와이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가족 사랑이 넘치시는 유성현 부기장님. 그의 새해 소망은 바로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 너른 50평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화목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는 유성현 부기장님의 꿈을 팩컴 가족 모두가 응원합니다!



제본사업본부 / 백기춘님

2018년 버킷 리스트에 결혼, 여행, 아기라는 세 단어를 적어주신 백기춘 님. 지난 해에 좋은 소식도 들려 왔고, 곧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2018년 새해 소망 또한 부모님의 건강과 더불어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따뜻한 마음씨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분명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풀류팀 / 주재은님

지난 해 첫 가족 여행을 가게 됐지만, 급한 일로 아버님께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된 것이 마음 쓰인다는 주재은 님. 올해 기회가 된다면 아버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제주도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싶다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주재은 님의 새해 소망은 가족의 건강과,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네요. 황금 개띠 해에는 결혼도 꼭 하시고, 가족 여행도 꼭 다시 가시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산 / 흥지순님

영원한 내 편인 소중한 어머니와 이별하는 일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겠지요. 지난 해 이처럼 가슴 아픈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흥지순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움은 그대로 두되, 남은 나 자신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못 다한 효를 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며 조심스레 새해 소망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2018년 새해 소망으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말씀하신 흥지순 님은 여권 만들기, 여행하기, 김치 냉장고 바꾸기 등 일상의 소소한 소망들을 버킷 리스트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늘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 주시는 흥지순 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18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산 / 김건극님

본인의 인생에서 뚱뚱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김건극 님은 올해 버킷 리스트 1번에 "비만 탈출"을 올려 놓았습니다. 나홀로 전국 일주를 꿈꾸며 점점 줄어드는 가족과의 시간이 아쉬워 버킷 리스트에 올려 놓은 "가족 사진 찍기"는 제 마음에도 잔잔한 파동을 만들었답니다.

2018년 새해 소망으로 주변 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김건극 님은 요리에도 무척 관심이 많고, 요리를 해 주는 것도 무척 즐기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 최종 목표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네요. 또, 여자친구와 보리가이로의 여행을 소망하고 계신 김건극 님, 2018년에는 비만 탈출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안산 / 이영숙님

새해에는 운동과 여행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돈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이영숙 님. 지난 해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싱가풀 여행을 꼽으실 만큼 동료 분들과의 각별한 우애를 자랑하는데요. 올해 또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짧게라도 한 번 더, 직장처럼 직장 동료 분들과의 추억 만들기를 희망하신다는 이영숙 님은 아픈 동료를 위한 응원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현정아, 넌 할 수 있어! 끝까지 힘내고 사랑해!!♡"

저희 팩컴 가족 모두가 최현정 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산 / 이진웅님

팩컴 개띠 생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피인 이진웅 님의 새해 소망은 무얼까 궁금했습니다. 2018년 버킷 리스트에 아침형 인간 되기, 맑은 일 잘 하기, 체력 기르기를 올려 놓으신 것만 봐도 진취적이고도 성실한 성향이 느껴지네요. 여행을 떠난다면, 장소 불문, 친구 & 회사 형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OK라고 답하는 걸 보니 역시 젊은 피네요!  
이런 이진웅 님의 새해 소망은 바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체력 단련을 잘 해 내서 좋은 일에 힘쓰며 살고 싶다는 멋진 청년입니다.  
이미 젊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장착하신 이진웅 님,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을 추가로 장착한다면 그대 이름은 SUPERMAN~!



해외사업본부 / 유공심 과장님

마지막으로, 네, 접니다!  
지난 해 제 삶에 가장 큰 변화이자 행복했던 기억은 "내 삶의 다음 일정은 뭘까?" 고민하던 중에 제의를 받게 된 팩컴 재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가족 모두 2017년 잘 견뎌 주고 건강하게 2018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2018년 무술년! 제 새해 소망은 가족 모두의 건강과, 이제 고 3이 되는 우리 서진이가 원하는 대학에 척 불는 것! 그리고 여행하기!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죠? ^^

## 무술년 삼행시 콘테스트

### 인쇄사업본부 / 유성현님

무 : 무리하게  
술 : 술만 마시지 말고  
년 :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 제본사업본부 / 백기춘님

무 : 무미건조했던 내 삶에, 내 마음을 온통  
술 : 술렁이게 만든 그녀  
년 : 연말이 가기 전 꼭 데이트를 신청하고야 말겠다!

### 물류팀 / 주재은님

무 : 무술년에는  
술 : 술술술~ 일이 잘 풀려서  
년 : 연말에 모두 대박 나세요~~~

### 안산 / 흥지순님

무 : 무지무지 예쁜 우리 언니들이랑 같이  
술 : 술 한 잔 하며  
년 : 연말 보내고 싶어요

### 안산 / 이영숙님

무 : 무지 힘듭니다  
술 : 술이 무지 땡깁니다.  
년 : 연말에 훌쩍! 한 잔… 마시겠습니다.

### 안산 / 이진웅님

무 :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술 : 술에 의지하지도 마라!  
년 : 연초의 첫 일출처럼 뜨겁게 살아가라!

### 안산 / 김건극님

무 : 무용담을 이야기 하시며 으쓱해 하시던 우리 아버지  
술 : 술상 앞에서 졸고 계시네  
년 : 연초에 보약 한 첨 해드려야겠다

### 해외영업부 / 유공심님

무 :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딸들  
술 : 술래잡기하며 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년 : 연령이 벌써 스물을 넘겼다니! 세월 참…

## 개처럼 살 일이다

황 철 원

꽁지 빠진 닭이 저기 저만큼에서 이제 막 가려 한다  
 어서 가라 했지만 저쪽 문턱에서  
 꼬꼬댁 하는 모습이 웬지 또 안쓰럽다  
 가라 하지 않아도 가겠지만 그래도  
 "썩, 꺼져 버려라!" 소리치면 웬지 속 시원할 것 같다  
 그래도 너로 인해 개 같은 해는 아니었다

계속해서 닭을 쫓아왔는지  
 저기 건너에서 무술이란 해를 물고  
 금방이라도 다가올 기세로 네 발 버티고 개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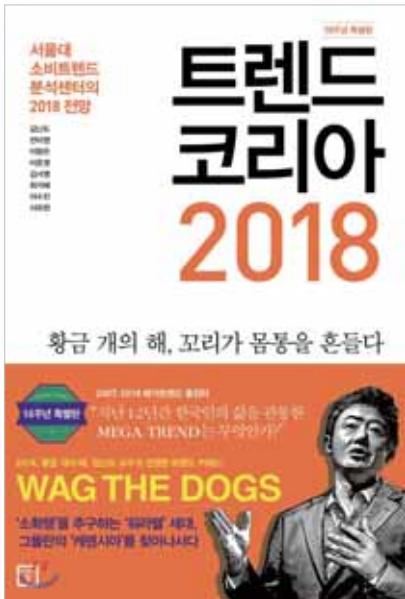
그가 오면  
 살아가다가 어떤 이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울고  
 때로 그것들 때문에 웃고 하겠지

그가 오면  
 또 곧 추위가 한풀 꺾이어  
 봄눈이 녹아 내리고  
 꽃들이 만개하여 열매를 맺고  
 수확한 나뭇가지로부터 또 다시 잎들은 떠나고  
 마른 나뭇가지들은 쓸쓸함을 가리기 위해  
 그 위를 눈꽃으로 덮겠지

그가 오면  
 그래도 개 같은 해가 되지 말고

그가 오면  
 개처럼 잘 아프지 않고  
 개처럼 팔자 늘어지고  
 개처럼 신의를 지키며  
 개처럼 친근하게  
 개처럼 단순하게  
 개처럼 영리하게  
 개처럼 때로 먹이를 쫓아 질주하며  
 그리고 개처럼 말없이 무덤덤히 살 일이다





## T R A N D K O R E A 2 0 1 8

책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는 2018년 개의 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는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의 "액더독 (WAG THE DOGS)"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SNS가 대중 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카드뉴스가 TV 뉴스보다, 노점의 푸드트럭이 백화점 푸드코트보다, 인디 레이블들이 대형 연예 기획사보다, SNS 스타들이 TV 연

예인들보다, 싱글 프로덕트 브랜드가 대형 종합 브랜드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그간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 (언더독Underdog)의 약진이 눈에 띄는 현 상황을 반영한 의미라고 한다.

액더독 키워드를 바탕으로 예상한 2018년 소비 트렌드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 1.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 Wha's Your "Small But Certain Happiness"?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하지도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난다.

## 2.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하다: "플라시보 소비"

: Added Satisfaction to Value for Money: 'Placebo Consumption'

가성비 열풍 속에서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즉 가심비(價心比)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3. 워라밸 세대 : Generation "Work-Life-Balance"

업무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을 보다 중시하게 됨으로써 직장이 삶의 전부였던 기성 세대와는 다른,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한다.

## 4. 언택트 기술 : Technology of "Untact"

"무인", "셀프", "자동화" 등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기술이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소비자들도 이런 언택트 기술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 5. 나만의 케렌시아 : Hide Away in Your Querencia

케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홀로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빽빽한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집이나 직장이 아닌, 제3의 피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 6. 만물의 서비스화 : Everything-as-a-Service

사람들이 돈을 쓰는 비중은 점점 더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서비스는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제품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서 사야 하는 것이다.

## 7. 매력, 자본이 되다 : Days of "Cutocracy"

단순히 스펙 좋은 제품이 아닌 매력 있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 자기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디자인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8. 미닝아웃 : One's True Colors, "Meaning Out"

주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의미, 정치적 신념 등을 SNS로 표현하고, 축제에 가듯 정치 집회에도 참석한다. 바야흐로 소비자들이 자기가 믿는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 변화의 "하드 캐리"가 시작됐다.

## 9.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 해 : Gig-Relationship, Alt-Family

인간 관계에도 비용 편익적인 사고가 적용되며 되면서, 관계 맷기의 양상은 기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기능적 관계와 대안적 가족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10.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 Shouting Out Self-esteem

다양한 컨텐츠, 화려한 삶을 영위하는 SNS 속 지인들을 보며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위로해 주는 컨텐츠와 소비 아이템들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선

## 수족냉증이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의 냉기를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이다.

### 1. 충분한 수면

잠이 보약이란 말, 많이들 들어 보셨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혈관이 긴장되면서 수축되고, 결국 혈류량이 떨어져서 손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수족냉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수면이 필수!!

### 2. 족욕 자주 하기

족욕을 하게 되면 발끝에 모여 있던 피가 온 몸으로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수족냉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족욕은 하루 10~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며, 족욕 시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발을 마사지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3. 차가운 음식 피하기

손발이 심하게 찬 사람이라면, 되도록 차가운 성질의 음식 섭취를 삼가는 것이 수족냉증 방지에 도움 되겠죠? 평소 차가운 우유나 맥주, 과일 주스, 녹즙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 4.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

이번에는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몸 속의 독소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며 항암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또한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도 맑게 해 주어 원활한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수족냉증은 물론 감기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손과 발의 혈액 순환을 돋고 차가운 혈과 따뜻한 혈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음식이며,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한방차"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향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한방 차는 수족냉증 개선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당귀차의 경우 피를 맑게 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 계피차나 생강차는 몸을 데우는 기능을 하기에 수족냉증 개선에 탁월하답니다. 이외에도 구기자차, 인삼대추차 등 효과가 좋은 한방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겨울철 동안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여 수족냉증을 극복해 보아요!

오들오들! 손발꽁꽁! 추운 겨울을 더 즐게하는

## 수/족/냉/증 파헤치기!

추운 겨울과 함께 불쑥 찾아 온 난데없는 불청객!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어떻게든 한기를 극복해 본답시고 양말도 여러 겹 신어 보고, 장갑도 꼭꼭 껴보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업무 중일 때에는 겹쳐 신은 양말이 오히려 신발에 꽉 껴서 답답하기만

하고, 장갑은 일을 하는 데에 불편하고 보기에 좋지도 않아서 결국 벗고 말게 되죠. 이렇듯 답도 없는 겨울철 수족냉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P박다솜**

# Dear — PAMILY —

2018 무술년 기념

## 팩컴 여러분께 현풍이가 보내는 편지

제 고향 수암동에서 저희 아버지 브라우니와 어머니 켈리의 따뜻한 품을 떠나, 이곳 약속의 땅, 군포로 이사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올해가 또 우리 종족인 개띠의 해라고 하니, 이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 시절 여기로 이사를 와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귀여움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먹은 덕택에 이렇게 씩씩하고, 또 건강하고 뺨질뺀질한 중개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려요! 약 4년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 본 팩컴 가족 여러분은 모두 다 정말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이셨어요.

은영 누나! 매일 제 집까지 수고롭게 와서 목줄을 풀어 주고, 출근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선 누나! 입맛 하나는 참 까탈스러운 제게 맛있는 간식을 섞은 아침밥도 특별 제조해 주시고, 점심 시간에 거르지 않고 꼬박 산책도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실에 가면 최고로 맛있는 오리 목뼈도 주시고, 때로는 잡기 놀이와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상무님! 맛있는 간식 쟁겨 맙습니다. 최 차장님! 꼬질꼬질하다 시면서도 매번 말끔하게 목욕시켜

주셔서 고  
고 말씀하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 과장님! 유 과장님!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낑낑거릴 때마다 잘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희 형! 잊지 않고 정시에 딱 맞추어 칼퇴근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생산 회의에 저도 몰래몰래 참석해서,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듣곤 하는데요. 가끔 품질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 오면 저도 참 심각해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늘 골치 아파하는 김희수 차장님의 안쓰릅니다. 제발 올해는 이런 품질, 공정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두가 골머리를 썩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오면,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아 주곤 합니다. 손님들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 와서 팩컴에 더 많은 일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팩컴이 더욱 더 부자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사람이 아닌 개로 태어났지만, 저에게 잘 해 주시는 분들의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가끔 아저씨처럼 재채기는 하지만, 감기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요.

개띠 해인 올 한 해, 팩컴 가족 분들 모두가 저처럼 사람 간 신의를 지키고, 저처럼 감기에도 안 걸리고, 아프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현풍 드림



긴 세월 간 여기 팩컴의 짧지 않은 추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이번 호에서는 심은식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기계들 사이를 오가며 늘 분주하게 일하시지만, 작게라도 인상 한 번 찌푸리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과장님. 새빨갛게 성책된 양장책 한 권을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시는 진지한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뭐 할 이야기가 있나"며 극구 사양하셨지만, 기자의 끈질긴 조르기(?) 끝에 즐거운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 **Q 입사하시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가을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나지요. 취업했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두근거림이 지금도 다시 느껴질 정도니까요.

#### **Q 팩컴에 특별히 감사한 분이 계신가요?**

함께 일하는 동료라면 누구나 감사해서 한 명을 족 집어 말하기 어렵네요. 굳이 이야기 하자면 백형재 부장님! 늘 기계와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 기계가 마음 같지 않게 말썽이면 속이 타거든요. 그럴 때 성의껏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일할 수 있게 끔 최선을 다 해 주실 때는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 **Q 하루 종일 책과 기계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니 저녁이 되면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일과 후 하시는 일이 있나요?**

충분한 휴식과 피로 해소를 우선으로 합니다. 재충전 시간은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날에는 영화를 보곤 해요. 오래된 영화를 수집하고 다시 보는 걸 즐기는 편이라서, 그런 시간을 보

내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맥주까지 한 잔 하면 금상첨화. 그 때가 제겐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랍니다.

#### **Q 과장님의 새로운 취향을 알게 되었네요. 그간 일하시면서 변화나 성장한 부분 등이 있다면요?**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책임감과 근면함이 많이 달라졌지요. 특히 여러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작업물의 마지막 공정을 책임지다 보니, 더 신중해지고 책임감도 막중해 진 것 같습니다. 반면,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분주함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 **Q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좋을 때도, 싫을 때도 있을 텐데요.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려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 아닐까요? 열린 마음에 편안한 느낌까지 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함께 일하기 즐거운 사람겠지요. 반면 업무 파악이 느리고, 열심히 익하고 배우려는 성실함도 없는 타의적인 사람의 경우 함께 일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네요.

#### **Q 잘 새겨 듣고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겠어요.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회사에 어떤 사람**

#### **이 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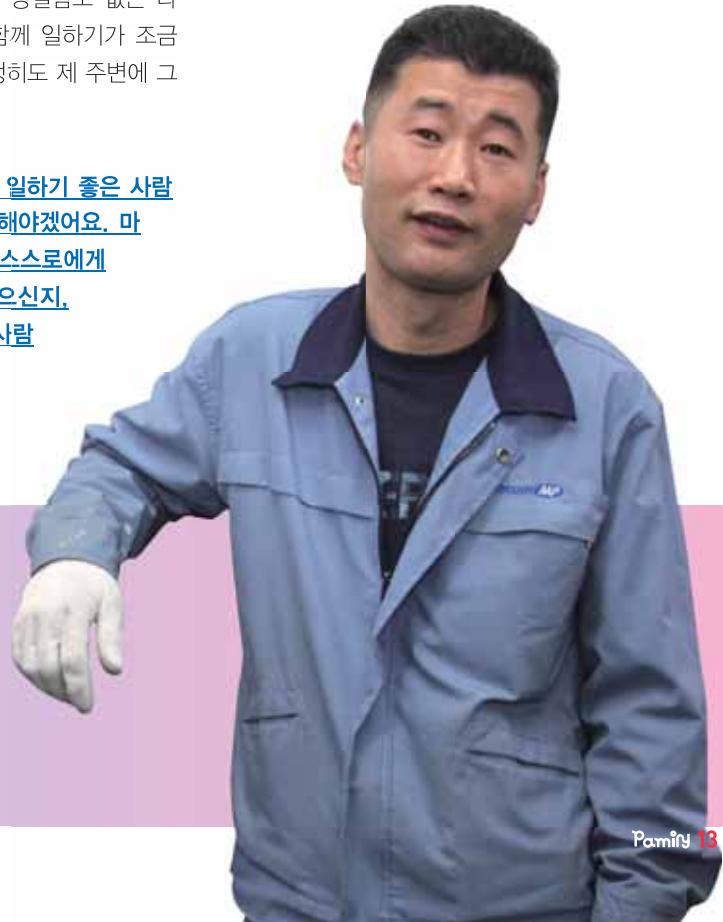
당연히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덧붙여 필요할 때 언제고 도움이 되면서도, 행동생처럼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 **Q 마지막으로 팩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벌써 팩컴의 가족이 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짧지 않은 기간, 함께 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팩컴 가족 분들 남은 한 해 정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양장팀 심은식 과장님과의 인터뷰였는데요. 한정된 시간 탓에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했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솔직하고 순박한 과장님과의 대화는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그 웃음 변치 않고, 늘 지금처럼 큰 목소리로 즐겁게 일하시는 과장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People  
심은식  
제본사업본부  
과장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Passion & Connected.*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하는 겨울 스포츠의 축제가  
평창에 찾아옵니다.



## 참가국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에리트레아, 에콰도르, 코소보를 포함하여 총 83개국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올림픽에서 도핑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로부터 이번 올림픽에는 참가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올림픽 선수단 형식으로 선수들은 참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경기장

###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1.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2.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3.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4.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5. 휘닉스 스노 경기장
6. 정선 알파인 경기장

###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

1. 관동 하키 센터
2. 강릉 컬링 센터
3. 강릉 하키 센터
4. 강릉 아이스 아레나
5.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30년 만으로,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동계올림픽 개최입니다.

평창에서는 개·폐회식과 대부분의 설상 경기가 개최되며, 강릉에서는 빙상 종목 전 경기가, 그리고 정선에서는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입장권 구매

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 19개 역사에서 판매

## 교통

KTX : 2017년 경강선(인천국제공항역-검암역-청량리역-서원주역-평창역-강릉역)

고속도로 : 올림픽 기간 동안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 개최종목

### 올림픽



### 패럴림픽



### 메달 디자인

한글, 한복, 한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 마스코트

수호랑(백호), 반다비(반달가슴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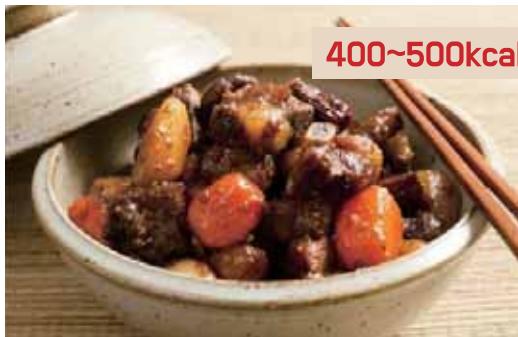
오랜 기다림 끝,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합니다.

\*덧붙여, 해외영업부 창조팀 유공심 과장님의 따님께서  
MBC 피겨스케이팅 해설위원으로 나설 예정이니  
모쪼록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잊지 말고  
기억하자

# 명절 꿀팁



**첫째** 의외로 칼로리 높은 명절 음식!  
**살 덜~찌는 꿀팁**

맛있다고 이것저것 열심히 집어 먹다 보면, 어느 새 하루 치 열량의 절반은 훌쩍 넘어 버리죠. 딱 설날 연휴 동안에만 먹고, 올해 다이어트 시작! 이런 말 뿐인 다짐은 이제 그만~! 그래서 소개하는 꿀팁! 입니다.

1. 전과 부침은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로
2. 나트륨이 많은 소금 대신에 간장, 멸치, 다시다 등을 적극 활용하기
3. 짜디 짠 조림보다는 구이 음식 위주로 만들기
4. 육류 조리 시 비계는 떼어 내고 되도록 살코기를 쓰기
5. 후식으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주는 딸기나 블루베리가 좋아요

\* 주요 고열량 명절 음식

떡국 1인분 : 400~500kcal  
동그랑땡 3~5개 : 130~150kcal  
갈비찜 반 접시 : 495kcal

## 둘째 명절 연휴 중 빈집털이 예방법

집을 꽤 오랫동안 비우게 되는 명절 연휴, 이를 노린 빈집털이도 슬슬 고개를 들 텐데요! 유용한 빈집털이 예방법,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 1. 기승전 문단속

문단속은 절도 예방의 기본 중 기본이죠. 가능하다면 이중 잠금 장치를 활용하고, 작은 화장실 창문까지도 철저히 잠가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 2. 정기 구독물 등은 미리 정지 신청

신문이나 우유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잠시 정지 신청을 해 두세요. 믿을 만한 이웃이 있다면, 문 앞에 붙은 전단지 등의 처리를 부탁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 3. 빈집 사전 신고제 활용

주택의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사전 신고를 해 두면, 정기 순찰을 통해 빈 집 주변 방범창 확인 및 위험 요소 제거 활동 등을 해 준다고 하네요. 단,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 봐야겠죠?

### 4.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오랫동안 같은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집을 비우기 전 비밀번호도 새롭게 변경해 보세요.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는 필히 제외할 것!

### 5. TV 예약 기능 활용

TV나 라디오 등에 꺼짐, 켜짐 예약 기능을 설정해 두고 집을 비운 티가 나지 않게 인기척을 내세요.

### 6. SNS에 위치 알림 금지

SNS에 명절 일정, 여행 계획 등을 공지하거나 위치 태그 등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마세요.

## 셋째 명절에 응급 상황이 생그다면!? 설 연휴에 병원 찾기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꼭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P 김은영**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 받기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 병원"으로 검색해 보기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사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1	2	3	
		3 1 봉선사 대웅전 2 관상수원의 계수나무 3 봉선사 입구 단풍 4 난대식물 온실 5 백당나무열매	5

## 국립수목원의 늦은 가을

늦은 가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순환도로를 벗어나 의정부로 향하는 길은 그렇게까지 막히지 않았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지금까지와는 격이 다른 드라이브 코스가 눈 앞에 펼쳐졌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완벽한 숲 속, 인간보다도 활빈 더 오랜 시간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울창한 나무들에게 매개한 자동차 매연이나 뿐만 아니라 생각에 괜히 마음마저 잠시 숙연하고 미안해질 정도였다. 마침 늦은 가을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나름대로 비 냄새에 흡싸인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볼 수 있었다. 이국적이면서 신비한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보다 더욱 완벽한 드라이브 코스가 또 있을까?

이곳은 꽤 오랜 기간을 광릉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99년 국립수목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단 한 곳뿐인 국립수목원이라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의 친숙한 광릉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수목원은 수도권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계절마다 제각기 뚜렷한 특징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사계절 내내 매력적이고도 아름다운 곳이다. 당일 경기도 여행 코스로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단, 다리 품은 좀 팔아야 하는 고생길이 예약되어 있겠지만,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고 숲과 함께 피톤치드 가득한 힐링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면서도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수백 년 이상은 되는 수많은 나무들이 뿐만 아니라 상쾌하고도 깨끗한 공기에 겹겹이 감싸인, 신선하면서도 아주 매혹적인 공간인 것이다.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 숲과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인 광릉, 천년 고찰 봉선사를 함께 들려보면 더욱 효과적이고 볼거리가 풍성한 여행이 될 듯하다.

주의점을 하나만 꼽아 보면,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이곳을 방문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곳 국립수목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평일에는 5,000명, 토요일, 휴무일에는 3,000명만이 제한적으로 방문 가능하다. 대신 입장료 또한 1,000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편이다.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수목원도 참 운치 있을 듯 하니, 이번 겨울에도 미리 예약을 마치고 훌쩍 다녀올 생각이다. 황철원



◇◇◇◇◇◇◇◇◇◇◇◇  
M O V I E   T A L K  
◇◇◇◇◇◇◇◇◇◇◇◇

### 로맨스 영화 좋아하시나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영화는 정말 유명한 로맨스 영화 "노트북"입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이며, 2016년에 재개봉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영화죠!

영화 "노트북"은 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 주며 시작됩니다. 책 속 주인공들은 목공소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년인 노아와 부잣집 딸인 앤리인데요. 어느 날 노아는 우연히 마주친 앤리에게 첫 눈에 반하게 되어 앤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가갑니다. 항상 정해진 규칙과 그 틀 속에서 답답하게만 지내던 앤리는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인 노아의 모습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노아와 앤리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도 싸우지만,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더 깊게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둘 사이에 방해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앤리의 부모님! 부유하고 엄격한 앤리의 집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노아의 교제를 반대하며 절대 둘을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그러한 반대에도 꾹꾹이 만

남을 이어가던 노아와 앤리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앤리는 뉴욕으로 떠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24살이 된 노아. 그는 여전히 앤리를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떠난 앤리에겐 약혼자가 생겼는데요. 약혼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앤리는 우연히 신문에서 노아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던 첫사랑에 다시금 흥들리고 맙니다. 결혼 전 복잡한 마음에 종지부를 찍고자 결국 앤리는 노아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노트북"은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로맨스 영화!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사람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노트북"!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P박다솜**

# 모르면 손해! 2018년부터 바뀌는 법·제도들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만 쑥! 쑥! 엄선해서 정리해 보았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아니 쓸 데 많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1. 최저임금 상승

작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새해가 시작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 지출도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서다. 단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2017년 7월 1일 지출 분부터 적용)

## 3.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이며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이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하여 기존의 일반 청약 저축 금리인 1.8%와 비교했을 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4. 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게 된다. 외래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0%, 2만원 초과~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25%, 2만 5천원 초과일 경우 30% 등으로 차등 적용되는 것.

## 5. 2018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

2018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는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를 70%(연간 150만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는 희소식이 전해진다.

## 6.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 공제 한도는 축소

당초 작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 7.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시행

특별관리 대상은 사고 위험성과 경찰 업무량을 고려하여 1년 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된다. 아울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 간 추가위반이 없어야 비로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한다.

## 8. 초·중·고등학교 코딩 의무교육

2018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딩을 의무교육 과목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 9. 수능 언어영역 절대평가 시행

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언어영역 절대평가가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언어영역을 잘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웬만해서는 1등급이 나오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원점수 기준 90점을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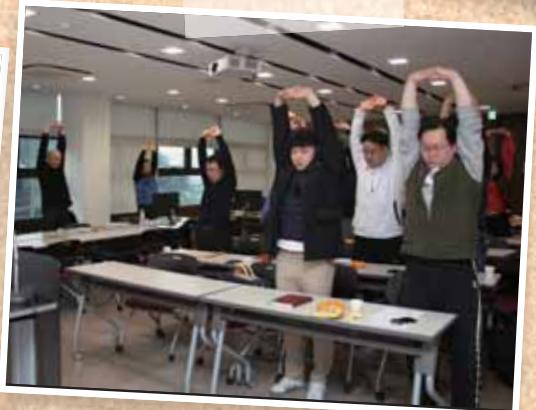




# 찰각소리

E semii@gopacom.com

재밌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 PACOM NEWS



### 제1회 프린팅데이(Printing Day 2017) 개최

지난 10월 25일 수요일, 서울인쇄정보센터 7층에서 ‘프린팅 성공 노하우와 최신 동향’을 주제로 제1회 프린팅데이 (Printing Day 2017)가 개최되었다. 인쇄업 공동의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된 이 자리에서 팩컴코리아 김경수 대표이사는 “수출을 위한 경영 노하우”를 주제로 30분 간 강연하였으며, 세계 인쇄 트렌드에 맞춰 한국 인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재 육성과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AP, 북메이크 소속 직원들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1부는 시상식으로 꾸며졌으며, 2부에서는 팩컴이 자랑하는 옥외 잔디에서 호화로운 뷔페 차림 기념 식사가 이루어졌다.



### 2018 수능시험

지난 11월 23일 목요일에는 2018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치러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수능은 본디 11월 16일이었지만, 15일 포항 지진 발생으로 1주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이변을 겪고 진행되었다. 이번 수능에서는 창조팀 황철원 본부장 / 인쇄사업본부 조태성 대리, 윤천만 대리, 남진만 사원 / PREPRESS사업부 이정우 대리 / 제본사업본부 허순원 사원의 자녀들이 시험을 치렀으며, 그간 열심히 해 왔던 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기이니만큼 모두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 국내영업 모닝 차량 신규 도입

국내영업의 발 빠른 고객 응대를 위해 최근 2017년 식 뉴 모닝 차량을 3대 구입하였다.

전국을 누비며 원활한 인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새로 도입된, 팩컴의 이 신차 3대는 2개월마다 정기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프로그램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 안전 교육

지난 12월 4일 월요일 월례조회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 사례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1시간 가량 대한산업안전협회 이용재 차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안전은 사랑’이라는 핵심 주제를 특히 강조하는 교육이었다.

덧붙여 지난 2017년 팩컴에서의 안전 사고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처럼, 2018년에도 역시 안전 사고 없는 팩컴을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 2017년도 워크샵 실시

지난 12월 8일 금요일~9일 토요일 양일 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팩컴그룹 2017년 결산 보고 및 2018년 사업 계획 발표가 임원진을 위시로 팩컴코리아, 팩컴AAP 대리급 이상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중 제본사업본부의 결산 및 계획 발표는 현장 공정의 선임자들이 업무 종료 후 합류, 참석하게 되어 펙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1일차 생산 전 부서 발표 종료 이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팀 별 덕담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아



### 제12회 서울인쇄대상 공모전 금상 수상

지난 10월 26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개최된 2017 인쇄문화축제 시상식에서 혁신팀이 진행한 ‘MAUI Plantation book’이 책자인쇄 분야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재)서울인쇄센터에서는 인쇄 기술의 향상을 유도하고, 고품질 인쇄물 생산을 촉진하여 국내 인쇄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우수 인쇄물에 시상을 하고 있다.

### 팩컴 창립 18주년 기념식

지난 10월 17일 화요일, 팩컴그룹 창립 18주년 기념식이 회사 5층 식당에서 있었다. 이 날 기념식에는 김경수 대표이사, 최숙 사장을 모시고 팩컴코리아, 팩컴

## PACOM NEWS

주 특별한 호프타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2일차에는 2018년 한 해의 영업 수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업부서 별 발표가 있었다. 예년과는 달리 핵심 이슈 발표 시간에 전원이 더욱 진지하게 물어 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팩컴AAP는 2018년 1월 12일 금요일~13일 토요일 양일 간, 대리(기장) 급 이상 및 사무직, 안산공장 인원 일부를 포함하여 2017년도 결산 품평회 및 생산부서 워크샵을 추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안전 보건 관련 인터넷, 스마트폰 교육 실시**  
팩컴AAP는 2017년 4/4분기부터 법정 안전 보건 교육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개별 이수하고 있다. 1차로 진행된 11월 교육에서는 인쇄사업본부의 조태성 대리를 비롯하여 총 3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현 시점 미수료자는 필히 12월 교육을 수료하여, 궁극적으로는 100%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 손녀 탄생 : 김이균 부기장**

10월 26일 목요일, 인쇄사업본부 매엽2호기 김이균 부기장의 손녀 김지아 양이 태어나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월 21일 치러진 결혼식에서 사실상 다소 금한 과속(?)임은 확인된 바 있었으며, 덕택에 어여쁜 손녀를 빨리 맞이하게 되었다고. 여담으로, 김지아 양은 멋진 할아버지와 훈칠한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 받아,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고 전해진다.

**직원 결혼식 : 정세미 사원**

지난 11월 4일 토요일, 팩컴 패밀리 사보를 비롯하여 팩컴의 모든 디자인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미 사원과 신랑 최명철 군이 논현 더베일리하우스에서 양가 가족과 많은 직원들의 축복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되었다. 여느 예식과는 달리 저녁 18시 30분에 진행된 이 날 식에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의 모습과 이날의 주인공, 신부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며 하객들의 칭찬과 축하가 끊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이곳 군포까지 전해진다.

께 나눈 지도 벌써 5년째가 되어 간다. 주지하다시피 2013년 연초에 사보 기자 9명을 엄선하였으며, 여러 번의 진지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 2013년 4월 1일 대망의 첫 호가 발행되었던 바 있다.

“팩컴 가족들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차근차근 담아 나갈 〈Pamily〉가 발간된다는 사실에 넘치는 설렘과 기대를 감출 수가 없다” 는 김경수 대표이사의 창간사를 시작으로, 이번에 발간되는 팩컴 Pamily는 자그마치 20호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황철원 편집장, 이원성 기자, 박미선 기자 등 원년멤버 3인을 위시로 여전히 왕성한 취재 활동 중인 〈pamily〉. 이 자리를 빌어 늘 사보를 받아 들고 어느 면 하나 빠짐없이 구석구석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가까운 곳에서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소식을 전하는 팩컴 pamily가 될 것을 약속 드리는 바이다. **이원성**

**팩컴 Pamily 20호 발간 축하**

팩컴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분기마다 직원 여러분과 함



# [북메이크]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콤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콤코리아 [www.gopacom.com](http://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http://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